

전세계 불자선수들 찾아와 기도

英 올림픽 빌리지에 마련된 불교법당 전세계 불자들 찾아

영적인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내면의 원동력을 얻는다. 영적인 힘을 얻은 사람들은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유지 시키거나 목적인 바를 달성해나갈 수 있다. 때문에 영적인 활동은 운동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2012 런던올림픽 주최측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수년간의 준비를 거쳐 개최기간동안 올림픽 빌리지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등 주요 5대종교단체의 종교의식장소를 마련했다.

스리랑카 신문 더선데이타임즈(The Sunday Times)는 8월 11일(현지시간) 영국 올림픽 빌리지 안에 마련된 불교법당과 지도법사 스님을 소개하고 예불을 올리는 각종 선수들과 법당의 모습을 전했다.

신문에서는 "올림픽 빌리지에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간다. 우리는 정신없는 이곳에서 취직임을 수행하는 도중 한 스님이 유유자적하게 이곳을 지나다니는 것을 보았다"며 "이 인물이 런던올림픽의 불교를 통한 영적지원활동의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이 언급한 인물은 바로 스리랑카 출신의 보고다 시라위말라(Bogoda Seelawimala) 스님.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원로 스님으로 영국 불교계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시라위말라 스님은 영국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 부부의 결혼식에 불교계 대표로 초대되기도 했다.

보고다 스님이 이번 올림픽 지도 법사로 임명되기까지는 엄격한 과정이 있었다.

스님은 "4년 전 런던올림픽 지도 법사(Buddhist spiritualist)에 지원을 했고 필기와 구술 테스트를 받았다"며 "구술테스트는 전화를 통해 진행했는데 면접관은 '만약 누군가가 당신으로부터 영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망명을 요구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등의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하는 등 매우 진지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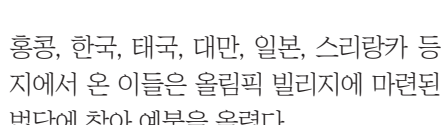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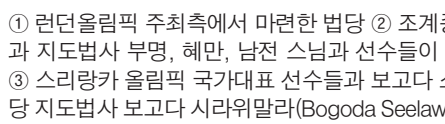
이어 스님은 "테스트를 거친 후 우리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받아야 했다. 올림픽 빌리지에서 가까운 해크니시에서 세미나를 통해 사람들을 반기고 상황을 컨트롤하는 방법 등을 배웠다"고 말했다.

런던올림픽 참가인원 1만5000명 가운데 500여 명이 불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홍콩, 한국, 태국, 대만, 일본, 스리랑카 등지에서 온 이들은 올림픽 빌리지에 마련된 법당에 찾아 예불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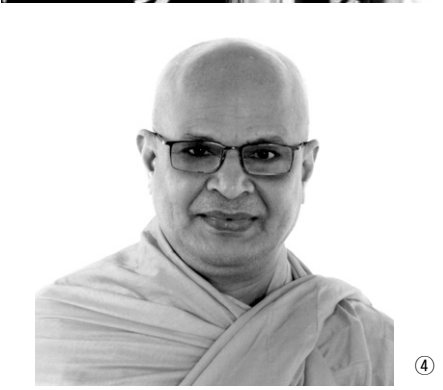
15평 남짓한 올림픽 빌리지 법당에는 불상과 과일, 꽃을 올릴 수 있는 불단이 마련돼 있으며, 각종 언어로 번역된 불교자료들과 경전들이 비치돼 있다. 선수들은 이곳에 와서 예불을 올리고 스님과 상담을 했다.

올림픽기간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까지 임무를 수행한 보고다 스님은 "법당에는 하루 평균 15명 이상의 선수가 와서 예불을 올렸다. 나는 그들과 명상을 하고 수행·신행관련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경험은 내게는 특관과도 같다. 스리랑카와 영국 스리랑카인 공동체를 대표해 불교를 알리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① 런던올림픽 주최측에서 마련한 법당 ②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한 직능전법단 체육분과 지도법사 부명, 해만, 남전 스님과 선수들이 올림픽 빌리지 법당에 둘러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③ 스리랑카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과 보고다 스님(앞줄 오른쪽 세 번째) ④ 올림픽 빌리지 불교법당 지도법사 보고다 시라위말라(Bogoda Seelawimala) 스님



이러한 교육을 따르는 일부 스님들도 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끼만을 식사하거나 또는 마지막 두끼를 정오인 내대에 먹는다. 이들의 식단은 간단한 디저트와 건조된 보존식품과 생선 또는 고기들로 구성돼 있다. 당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수도원과 신도들간의 영적인 유대관계가 이어질 것이라 믿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 비구니 발자취 연구

세계의 불교학자(29)

미리암 레버링
美 테네시대 종교학 명예교수



최초의 비구니 승단은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허락 하에 500명이었으나, 당시로서는 거대한 집단으로 출발했다. 이는 자이나교 이외에는 여성의 종교 수행을 허가하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여인오장설(女人五障說)과 비구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는 비구니 팔경법(八敬法), 남성 중심의 문화적 환경 등, 비구니 스님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여전히 비구 스님들보다 훨씬 열악하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비구니 승단이 존속되고 있는 곳은 한국, 베트남, 대만, 일본 뿐이다. 그 가운데 1600여 년간 법맥을 단 한 번의 단절도 없이 유지해온 곳은 한국 비구니 승단이 유일하다.

일본 불교는 재가중심이어서 여성 수도자를 전통적인 비구니라고 볼 수 없다. 중국은 대륙의 불교전통이 이미 끊어진 것과 다름없고 대만의 비구니 승단이라는 것은 대륙의 전통에 맥을 갖다 대는 것인데 그 대륙의 전통은 희미하다.

미리암 레버링(Miriam Levering) 美 테네시대 종교학 명예교수는 그 동안 역사적, 사회적 제약에 의해 간과돼 왔던 아시아 지역 비구니 스님들의 발자취를 연구해왔다. 특히 그는 선불교를 비롯해 중국·일본·여성종교에 대해 연구해왔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한국에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주제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2004년 한마음선원이 '동아시아의 불교 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해 1300년간 법맥을 유지해온 중국 비구니 삶에 대해 조망했다.

"중국 불교사의 비구니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표한 레버링 교수는 "비구니는 물론, 수많은 여성들이 중국불교에 참여했다. 비구와 비구니들의 숫자를 처음으로 구별했던 인구 기록은 8세기 초엽인데 전체 123,000명의 스님들 가운데 비구니가 5만명으로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버링 교수는 516년경 바오장(寶唱)이라는 학승이 쓴 《비구니전》을 소개하며 "중국의 비구니 승가가 초기 엘리트 계급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불교사원의 여인들을 기뻐하는 최초의 책인 《비구니전》에는 357-519년 사이 살았던 비구니 스님을 조망하고 있다. 당시 스님들은 학식, 세련된 문학적 기량은 물론, 신심이나 고행, 명상 학습과 교수 등 탁월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 레버링 교수는 "4세기부터 130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비구니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며 수행하면서 중국 사회 속에서 번성할 수 있는 삶의 형식을 발전시켰다"며 "모든 시기의 상당수의 비구니들이 불교의 목적이나 시대의 이상, 나아가서는 불교 전통 전체의 이상을 구현했다"고 덧붙였다.

중국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진 레버링 교수는 2011년 간화선 국제학술회에서 '대해종교와 죽음의 후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대해는 공(空)의 궁극적 진리, 그리고 공과 업보라는 진리의 두 측면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업보에 대한 믿음에 의해 촉발되는 강력한 감정을 이용했다"며 "그는 재가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혜를 키워서 깨달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레버링 교수는 2011년 간화선 국제학술회에서 '대해종교와 죽음의 후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대해는 공(空)의 궁극적 진리, 그리고 공과 업보라는 진리의 두 측면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업보에 대한 믿음에 의해 촉발되는 강력한 감정을 이용했다"며 "그는 재가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혜를 키워서 깨달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레버링 교수는 2011년 간화선 국제학술회에서 '대해종교와 죽음의 후부'를 주제로 발표했다.

"선대 비구니, 불교 이상 구현"

<대해의 서장> 영어로 번역

韓·中 수행관련한 개론서 집필

레버링 교수는 간화선 체험을 한 후 교계인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체험을 통해 화두, 의식에 대해 배우게 됐다. 비록 수행을 통해 수발 스님이 말씀하신 체험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새롭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선불교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간화선 수행 체험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이곳에서 겪었던 경험들에 대해 많은 외국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체험을 추천해 주고 싶다"고 전했다.

레버링 교수는 美 웰슬리대에서 중국역사·유럽역사를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뒤 1968년 미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 종교학으로 석사학위, 이후 1978년 역사, 비교종교학 분야중에서 중국불교전통 인도 불교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저서로 <선: 이미지, 텍스트, 가르침>(런던, 독일, 뉴욕, 프랑스에서 출간)외 다수의 연구서적이 있다. 최근 <대해의 서장>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으며, 중국불교 및 한국불교의 수행과 관련한 <대해 서장>의 중요성을 개괄하는 종합적 개론서를 집필 중에 있다.

이러 레버링 교수는 "4세기부터 130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비구니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며 수행하면서 중국 사회 속에서 번성할 수 있는 삶의 형식을 발전시켰다"며 "모든 시기의 상당수의 비구니들이 불교의 목적이나 시대의 이상, 나아가서는 불교 전통 전체의 이상을 구현했다"고 덧붙였다.

이러 레버링 교수는 "4세기부터 130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비구니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며 수행하면서 중국 사회 속에서 번성할 수 있는 삶의 형식을 발전시켰다"며 "모든 시기의 상당수의 비구니들이 불교의 목적이나 시대의 이상, 나아가서는 불교 전통 전체의 이상을 구현했다"고 덧붙였다.

태국 승려 절반이 성인병 환자

신도들 올린 공양물 원인 달고 기름진 음식이 문제

태국 스님 절반 이상이 비만과 고혈압·당뇨 등 성인병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주간신문 데일리 메일(Daily Mail)은 8월 1일(현지시간) "태국 스님 중 절반이 임상적으로 비만이며, 그들 중 40%는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질환을 갖고 있다"며 "태국 정부는 스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보도된 태국 스님들의 건강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태국의 11개 주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246명의 스님들이 비만·고혈압·당뇨 등 생활 질병을 앓고 있었다.

조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신도와 공무원들이 기름지고 단 음식을 탁발하는 태국 스님들에게 공양물로 올



데일리메일은 "성인병 질환을 앓는 스님이 늘고 있다"며 비만의 스님 사진을 게재했다.

린 것이 (스님들이 성인병 질환을 앓게 된) 가장 큰 이유"라며 "스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이어트 플랜"이라고 주장했다.

태국의 스님들은 아침 일찍 사원에서 나와 발우를 들고 탁발을 하며 돌아다닌다. 연구조사에서는 "스님들이 탁발을 할 때, 그리고 사원 내에서 빗자루질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만·성인병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며 "기름

지고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스님들의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국 보건 당국은 스님들의 삶을 빼기 위한 식품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스님들에게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음료가 무엇인지, 또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생활에 적합한 식이요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적절한 운동법을 조언할 계획이다.

또한 당국은 신도들에게는 탁발승들의 건강을 위해 공양물로 쥐야할 것과 주지 말아야 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러한 교육을 따르는 일부 스님들도 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끼만을 식사하거나 또는 마지막 두끼를 정오인 내대에 먹는다. 이들의 식단은 간단한 디저트와 건조된 보존식품과 생선 또는 고기들로 구성돼 있다.

당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수도원과 신도들간의 영적인 유대관계가 이어질 것이라 믿고 있다"고 전했다.

"신발에 부처님? NO!"



美 캘리포니아의 한 신발회사가 부처님 모습을 신발에 장식한 상품을 판매해 현지 티베트인들과 불교커뮤니티로부터 탄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상품은 'Icon'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발등을 감싸는 부분에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그림을 넣었다.

티베트와 부탄의 불자들은 불교를 모독하는 행위라 보고 항의의 문서를 신발 회사에 보냈다.

美 티베트인 국회의원 타시 남같은 "이 신발을 우연히 봤을 때 충격을 휩싸였다. 카달로그에서 그 신발을 없애달라고 서한을 보냈다"며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이러한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들 출가익식 지원

신부들은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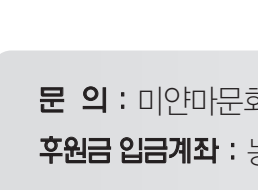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이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